

지역 소식



완주자봉센터, 사랑나눔 자원봉사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17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소외된 독거어르신 400여명을 모시고, 사회단체 등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애 완주라이온스클럽, 봉동로타리클럽, 삼례로타리클럽 등과 연계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의 흥겨움을 위한 문화공연, 건강을 위한 돌보미 맞춤, 수지집, 우물검진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다. 또한 이날 음식은 완주군지역사랑봉사단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영양 삼계탕 준비로 어르신들의 입맛을 살리고 기력을 돋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원주=이종복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가뭄대비 영농급수 만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심진제 저수율이 지난 16일 현재 1억6,600만톤 65.4%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영농 급수를 위해 심진강변 광역수계 수원공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진강변 광역수계 수원공 관리위원회는 3억3,177ha의 김제, 정읍, 부안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급체계의 구축과 함께 청정 농업용수의 적정 공급을 위해 전북지역 본부 수원관리부와 동진지사, 정읍지사, 부안지사 관계자로 구성하여, 수원공별 물관리 계획을 협의 수립하고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완주군 관광정책 워크숍

완주군은 2017년을 완주관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광정책 워크숍을 17일 삼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 우석대학교 황태규 교수, 전북연구원 연구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은 2016.8월 관광체육과 신설과 더불어 경천자수지 개발 등 각종 대형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본격 육성

완주군, 농가소득 증대 위해 재배기술 교육·시설지원 등 기반 구축

완주군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모아 만든 21세기 퓨전과일인 '플럼코트'를 본격 육성하기로 하고, 재배기술 교육과 시설 지원 등 기반구축에 나섰다. 17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ha 규모의 플럼코트 묘목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재배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창구로 SNS(밴드)를 만들어 '플럼코트연구회'를 조직한 뒤 전문강사를 초빙해 재배 작기별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투입해 Y자 지지시설과 관수시설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플럼코트연구회원 40여명이 전남 곡성군과 나주시 일원의 플럼코트 시설재배 현장을 견학하고, 시설재배를 통한 수기조절로 경영비와 수익성을 분석하는 등 소득제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이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새로운 과종으로, 외관은 살구와 유사하게 보이나 유전적으로 자두와 살구가 절반씩 섞여있



다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향기로운 과일이 어우러져 새콤달콤하며 다른 과일에 비해 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플럼코트는 우리 기후와 토양에 맞는 과일이어서 수입 농산물에 맞설 대체작목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동안 전북에서는 재배되지 않았던 작목인 만큼 플럼코트 재배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군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른 과종과의 차별화된 유통과 판매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완주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행

다음달부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록면허세 정기분 4종

완주군은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가 관련 지방세징수법 제23조를 개정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

방세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로만 국한돼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됐었다. 완주군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세목은 정기분 4종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가 해당되며, 납부회람자는 완주군 재정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하거나 온라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납세자들이 자동이체 통장 잔액부족으로 미출급되어 체납되는걸 방지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세자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김제시, 벼 직파 기술시범 현장연사회 개최

김제시(이건식 시장은)는 전북농업기술원 및 농협중앙회와 연계하여 17일 쌀 수급안정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무논점파) 현장연사회'를 전북 시군 농업인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민경음 일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회에서는 벼 경영비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재배 신기술 설명과 벼 직파 동시 축조시비,

드론 및 무인헬기를 활용한 현장 기술 연시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최근 직파재배에서 대두되고 있는 농가들의 잡초방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직파동시 완효성비료 축조시비로 노동력과 생선비를 절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송복 김제부시장은 환영사에서 쌀

적정생산 3고(밭갈, 원전미, 쌀 소비) 3저(재배면적, 비료 사용량, 생산비)의식전환운동으로 벼 재배면적을 3만 5천ha 감축하고 고품질 품종재배로 쌀 소비를 확대 시키고자 추진 중인 정부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현장에서 제시해 준 것이며 전북 농업경영체 및 시군담당자들에게도 논 직파 재배 의식전환과 신작부 체계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제사랑장학생으로 선정된 10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일반장학생 88명, 이·통장 자녀 장학생 8명, 예체능 특기자 특별 장학생 4명과 기선정된 4년장학생 82명을 포함한 총 180명에게 2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120만원,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에 따라 300만원에서 600만원의 장학금을 4년간 지급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난 2007년 8월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228명에게 17억 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관내 명문학교 육성을 목표로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지원,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창의과학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건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속된 김제 미래 100년을 짊어지고 나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말하고 "경제적인 격정없이 내일에 대한 꿈만 꾸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는 김제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업정책과, 농번기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농업정책과 직원 18명은 17일 농번기를 맞아 현장체험 일환으로 봉남면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부족한 일손을 보태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으나 고령화와 부녀화로 부족한 일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사과) 농가에 사과꽃 수기, 주변 정리(13,722㎡)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평소 김제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식량작물, 원예 특작 분야의 보조금 지원에 앞장섰던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농산물 생산의 한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농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농업정책수립 등 농업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김제시는 농촌일손돕기추진단을 운영하여 기관·단체별 지원체계를 구축, 연중 농촌일손돕기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김제시 전청원 및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인력자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번기의 경우 상·하반기 년2회 정기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기상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경우 상황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해마다 5~6월 과수 채수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 공무원, 농협 등 각종 기관단체와 함께 일손돕기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적·임야도 도면정비사업 시행

김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적·임야도 도면정비사업'을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면(백산·용지·백구·공력·금구·봉남)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와 함께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을 2004년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도면정비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축척의 디오화, 지적제도 한계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도과·축척 간의 이격 및 중첩 등의 오류필지의 경계선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의 완료로 디지털 지적구축이 마련되면 지적재조사사업, 국가공간정보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등 국책 사업 추진에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축척성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로 시민들에게 고품질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이 참좋다

순창 종합 사무기기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